

[1599~1693]을 모시는 사우이다. 전구원의 유허비와 유허각, 강당인 구장정사가 현존한다. 2015년에 개축했다. 우와는 만휴(萬休) 임유후(任有後), 서파(西坡) 오도일(吳道一), 격암(格菴) 남사고(南師古)의 사사를 받아 올린 유학의 체계를 세우고 집대성했다. 「태고헌향음주서(太古軒鄉飲酒序)」를 집필하고, 문집으로 『우와집(禹窩集)』 2권이 전한다. 전선은 상촌(象村) 신흠(申欽), 우암 송시열의 사상을 좇았으며, 연산군 당시 ‘이이첨(李爾瞻) 능지처참 소(疏)’를 올린 유림을 대표해 올렸다. 『만은집(晩隱集)』이 전한다.

2) 만금산(萬金山)

이 산(山)은 조선시대에 현령(縣令)이 지나가다가 금(金)과 같이 중요한 산이라 하였고, 마을 사람 유추거사(有秋居士)와 임만휴(任萬休) 선생과의 문답(問答) 중에서도 이 산을 만금(萬金)과 같다 하여 만금산(萬金山)이라 불러오고 있다.

3) 성황당(城隍堂)

마을 안에 있는 소나무 성황(城隍)으로, 매년 음력 정월 15일에 제사를 올린다.

4) 청룡거리(靑龍街)

조선 말엽에 전경숙(田慶淑)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출생하자마자 일어나 앉고 말을 하고, 장사였다. 나라에서 이 사실을 알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여 빨랫돌과 콩 3가마를 아이의 등에 올려서 놀러 죽었는데, 하늘에서 천둥이 치며 소나기가 오더니, 청룡(靑龍)이 하늘에서 내려와 크게 울고 사라졌다 한다. 청룡이 내려온 자리에 청룡의 발자국이 있어 청룡거리라 전(傳)하고 있으며, 지금도 청룡의 발자국 같은 흔적이 남아있다.

제25절 신화2리(新花二里)[속명 : 화리(花里)]

1. 마을의 자연환경

신화2리는 쇠치봉의 지맥(支脈)인 뚜골재 대골산(山) 넘어 산등(山嶺)에 있는 마을로, 동쪽은 새마(新里)와 접하고, 서쪽은 깃대산(山) 천지소(天地沼)가 있으며, 남쪽은 마을 앞 산(山) 너머에 만금산(萬金山)이 있다. 북쪽은 대골과 부구리(富邱里)가 있다. 마을회관은 2018년에 개축하였다.

2. 마을의 역사

1400년경에 담양인(潭陽人) 전말항(田末項)이란 선비가 개척하였고, 그 후 그의 아들 전필위(田弼違)가 피란(避亂) 갔다 오는 길에 앞산(山)을 바라보니 산(山) 형태가 개화형(開花形)과 같다 하여 마을 이름을 화리(花里)라 하였다.

3. 성씨별가구 분포

총 44세대가 거주하며 담양 전씨(潭陽田氏), 울진 장씨(蔚珍張氏),新安 주씨(新安朱氏) 등이 주로 세거하는 집성촌이다.

4. 마을의 특징

1) 성황당(城隍堂)

마을 입구 산(山) 중턱에 있는 모과나무를 신목으로 모시는 성황(老松城隍)에 매년 음력 정월 15일에 제사를 지낸다.

3) 솔골(松谷)

옛날부터 울창한 소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라 하여 솔골(松谷)이라 한다.

3) 유허비각(遺墟碑閣)

1858년(철종 9)에 건립한 만은(晚隱) 전선선생(田銑先生)의 비각(碑閣)으로 묵암(默庵) 전필위(田弼違), 만은(晚隱) 전선선생(田銑先生) 조손(祖孫)의 유허비각(遺墟碑閣)이 함께 화리(花里) 입구 솔거지등(嶺)에 세워져 있다.

제26절 주인1리(周仁一里)[속명 : 석수(石水)]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매봉산(鷹峰山) 지맥(支脈)인 비릿재산(山)이 좌청룡형국(左靑龍形局)으로 감싸며 산 끝에 부구천(富邱川) 중류(中流)와 맞닿아 있다. 서쪽은 멀리 매봉산 주봉(主峰)을 바라